

칼럼

장기채 주필



##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싶다

훈련스럽고 힘든 때다. 그 와중에 우리는 겨울의 끝자락에 와 있다.

봄의 길목이기도 하다. 불어오는 찬바람에도 봄 내음이 살포시 묻어난다. 봄은 생명이고, 희망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땅의 기운들이 기지개를 켜고 세상과 마주하는 첫 순간이다. 봄이 오는 소리는 여린 일을 뛰어가 위해 꿈지락 거리는 소리, 두꺼운 일음을 녹이며 출출 흐르는 개울물 소리와 함께 봄의 전령이 되어 힘찬 날개짓을 한다. 봄꽃들의 화려한 외출, 이젠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싶다.

깊은 산골은 아직도 온통 하얀 세상이다. 겨우내 거친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동백 꽃봉오리들은 어느새 낙엽처럼 깔려 버렸고, 최남단 제주도 성산에는 봄기운 한껏 맞은 유채가 꽃을 피운다. 내달 4일은 입춘(立春)이다. 곧 남도 땅은 노란 물결로 뒤덮인다. 노란 산수유, 매화, 개나리, 진달래 순으로 꽃망울을 터뜨리는데 몇

해 전부터는 피고 지는 순서도 없이 한꺼번에 피었다가 지고 만다. 꽃도 계절의 감각을 잊었는지도 모른다. 겨울 속에는 봄이 숨어 있는 것일까. 아무리 극한 겨울 속에도 봄은 내일을 숨쉬고 있는 것일까. 합평 자연생태공원에는 성급한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순천 매곡동에는 흥매화도 꽃을 피울 것이다. 멀리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 수목원에는 엊그제 ‘납매’가 활짝 피었다. 음력 12월을 뜻하는 한자 납(臘)과 매화를 뜻하는 매(梅)가 붙여져 생긴 이름이다. 연못 보기에는 매화와 비슷한 예쁜 꽃이다. 한 겨울 주위를 경고하고 나온 귀한 꽃이라는 뜻에서 ‘한객(寒客)’이라는 애칭도 붙여진 그런 꽃이다. 그러나 벼거운 설립살이에 먹고 살기 조차 빠듯한 서민들에게는 ‘입춘 대길(立春大吉)’일 수가 없다. 그 애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이다. 서민들은 언제나 이 어려운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인

가. 입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봄이 오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얼음 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마음은 정녕 봄이 오고 있는 느낌이다. 예나 지금이나 봄은 늘 상서로운 기운과 아우러져 부푼 희망으로 차 오르게 했다. 그러나 그 동안을 돌아보면 흑독한 겨울이었다. 겨울의 깊은 곳을 간너웠다. 바람은 아직 차갑지만 분명 봄으로 가는 첫 이정표다.

또 우수가 지나고 봄이 언 땅을 녹이면, 잠자던 별래들이 꿈틀거리고 냇가의 얼음 밑에서도 물고기가 돌아다닐 것이다. 이 좋은 시절에 국민은 아직도 죽을 맛이다. 더 큰 문제는 얼마나 더 이어 두운 골짜기를 헤매야 할지 까마득하기만 하다. 그래도 어찌 하겠는가.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길운을 바라는 마음들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천운발원하며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소망을 기원하는 문구를 써붙이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봄은 따뜻한 바람이 불고 빠고 노란 꽃이 피는 때이지만, 절기상으로 입춘이 봄의 시작이다. 양력 2월4일의 입춘은 아직 대한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아 여전히 추운 겨울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점점 따뜻해 지리라는 희망이 가득 담겨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러한 입춘을 맞아 대문이나 문설주에 붙여 봄이 오기를 희망하고 한해 길운을 빌었다. 그런데 요즘 흔히 듣는 말로 “이제 나라나”라는 말이 어느 팬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를 정도로 국가의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지 이미 오래다. 이렇듯 나라라고 말하기에 믿ahan 나라에 사는 국민들에게 무슨 기쁨과 흥취가 있을 수 있겠는가.

우수(雨水)는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물이 된다는 뜻으로, 이는 곧 날씨가 풀려 따뜻해짐을 의미한다. 우리 곁에 찾아오는 봄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는 시구인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새봄을 맞으며 다시 시작해 보자. 봄은 정녕 오는데... 그늘진 우리 경제에 새봄의 천란한 햇살이 기다려진다. 그런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싶다.

## 社說

##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해야

강릉펜션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스 보일러가 있는 숙박시설에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니 기대다.

액화석유가스(LPG) 소형탱크는 제조 단계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부탄 캔은 파열방지 기능을 장착하도록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가스안전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취사·난방용부터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1차 기본계획 시행 이후 가스 관련 사고의 발생과 인명피해 규모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09~2013년 연평균 201.2명에서 2014~2018년 125.4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생활 주변에서 취급 부주의나 시설 미비로 일어나는 사고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산업용 가스 사용량도 크게 늘면서 대형 사고를 예방할 더욱 강화된 대책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2018년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형 인명사고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2차 기본계획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진 가스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시설, 농어촌民박 등은 가스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시설에도 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더욱더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기출인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건설현장을 화재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려면

최근 건설사망재해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건설사망자가 6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50%(3건) 증가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는 전 산업의 약 47%를 점유하며 건설사망재해 중 약 58%가 추락으로 그리고 약 56%가 20억원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집중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국내 사망재해는 건설업·추락·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전형적인 후진국 산재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

과 일본의 건설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2005년 이전에는 전 산업 대비 건설추락사망비율이 약 69%였으나 그 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2011년 55%로 감소했다.

반면 국내 건설추락사망 비율이 2011년에는 68%였으나 최근에는 이 비율이 더욱 증가하는 등 후진국형 산재형태가 심화되고 있다. 물고기가 많이 몰려 있는 장소부터 물고기를 잡아야 하듯 사망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

상으로 추락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활동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건설작업은 대부분 고소작업으로 추락위험이 높아 사전에 추락방지 시설을 필히 설치해야 한다.

추락방지 시설은 작업자가 작업장소로부터 공중으로 이탈하려는 것을 막는 ‘작업발판+안전난간’과 작업장소에서 이탈 후 추락하는 작업자가 바닥에 도달해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방망’이 있다. 추락사망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으면 작업발판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비계를 설치해야 하나, 강관비계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시스템비계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시스템비계 설치 유도를 위해 시스템비계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클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 한계와 골조업체의 저항으로 전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조기 정착이 쉽지는 않다. 추락사망재해를 막기 위해 강관비계를 이용하는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하게 추락방지시설인 난간·안전방망 등을 추락위험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백종희 / 무인소방서 지휘팀장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